

2000년도 『월간양계』 선정 10대뉴스

- 홍보 팀 -

중국산 가금육 수입 재개

지난 1997년 말 홍콩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인해 금지되었던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이 2년 4개월만인 지난 5월 2일 전면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길림성 등 4곳을 수출작업장으로 지정하고 오리육을 시작으로 수출을 재개하였다. 닭고기는 지난 6월 시험용으로 93kg가 들어온 이후 8월에는 119톤, 9월에는 413톤, 10월에는 401톤, 11월 15일까지 516톤 물량이 수입되어 총 1,449톤의 물량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국산 수입재개 이후 “중국의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설”이 대두된 바 있으며, 중국산 수입닭고기 수입 확대움직임에 따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작업장 승인도 엄격한 심사와 현지조사 등을 거쳐 국내 위생기준에 적합한 작업장만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양계관련 업체 코스닥시장 진출 가속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인터넷 산업이 중심축이 되는 경제환경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이 붐을 이루면서 축산업계 특히, 양계업계의 코스닥 시장 진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1997년 (주)하림이 국내 양계관련 업계로는 처음으로 코스닥 시장에 진출한 이후 사료업체(한일사료 등)는 물론 약품업체(대성미생물연구소 등) 등 10여군데가 현재 코스닥 시장에 진출하였다. 특히 양계관련업체 중 (주)마니커가 코스닥 등록을 마친 상태로 오는 12월 7일 주식매매를 앞두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 가농(주)이 내년도 상장을 앞두고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8천개 가까운 벤처기업과 이와 행보를 같이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은 지난해의 폭발적인 성장에 이어 금년도에는 폭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은 향후 1~2년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선진화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관련업체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닭 뉴캐슬병 확산, 농가에 큰 피해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해들면서 닭 뉴캐슬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농가에 큰 피해를 가져옴에 따라 지난 5월 13일자로 닭 뉴캐슬병 발생 주의보를 공식 발령하였다.

닭 뉴캐슬병이 확산되고 백신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백신의 품귀현상까지 보이면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뉴캐슬병 발생사실이 TV와 각종 신문 등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사실상 소비가 격감하여 출하 가격이 크게 하락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본회는 지난 5, 6월에 뉴캐슬병은 물론 가금인플루엔자와 가금티푸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의 강의를 통하여 양계농가들이 닭 질병 예방은 물론 발생시 조치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여 양계농가의 질병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뉴캐슬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스터(50×60cm)로 제작하여 농장 입구에 부착케 하여 발생 예방은 물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효과를 거양하였다.

정부는 또한 199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닭 뉴캐슬병 근절 강화대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중계·부화업 허가제 강화 내용'을 골자로 정부안을 발표, 추진하고 있다.

계란 등급 및 품질기준 마련

정부가 소비자에게 계란 선택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여 고품질의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금년 5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계란 중량과 품질 등급기준이 정부관계자, 생산자, 유통상인 등 관련인들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최종 확정되었다.

생산자들은 그 동안 현재 국내소비 형태를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해 가자는 의견을 주장해 왔으나,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국내산 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 확보 및 양계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면서 지난 10월 30일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대전지소에 서 최종 절충안이 확정되었다.

최종 확정된 중량등급(안)은 왕란 68g 이상, 특란 60g이상~68g미만, 대란 52g이상~60g미만, 중란 44g이상~52g미만, 소란 44g미만으로 경란을 없애고 왕란 68g이하 8g씩 균일화하였다.

한편 품질등급 기준은 4등급으로 구분한 정부의 기본(안)이 채택되었는데 이 기준은 계란중량의 경우 2001년 1월부터, 품질등급기준은 2001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닭고기 유통경로조사 발표

본회가 수입닭고기 증가에 따른 국내 육계산업 보호차원에서 기초자료를 얻기위해 지난 5월부터 용역사업으로 추진해온 '수입 닭고기 국내 유통경로 조사'가 3개월에 걸친 연구결과 지난 8월 마무리되었다. 연구책임을 맡아온 김정주(건국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수입닭고기는 아직 유통체계 및 위생적인 문제가 많으며 가격면에서도 크게 유리한 점이 없어 국내 닭고기의 신선도와 위생수준을 높이면서 생산비를 절감시킬 경우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1997년 이후 수입자유화가 국내 닭고기 시장에 미친 영향을 PEA(부분균형분석) 방식을 적용, 계

산한 결과 정부가 육계산업에 환원해야 할 금액이 1년에 291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국내 닭고기 수입은 8월 현재 60여개 업체가 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0여개 업체가 전체 수입량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캐슬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 강력 촉구

전국 종계인들은 뉴캐슬병이 살처분보상금 지급대상 질병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질병이 상재질병이며 폐사한 닭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철저히 외면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살처분 보상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정부의 양계산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가 계속될 경우 전 양계인과 연대하여 실행행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닭 뉴캐슬병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자들은 지난 11월 20일 축산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내년부터 예방백신 공급확대 및 80%이상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면 살처분 보상금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닭티푸스 생균백신 야외시험 실시

지난 1992년부터 국내에 발생, 채란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가금티푸스에 대한 생독백신 사용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한해

였다.

따라서 금년초 서울대학교 김선중교수팀을 주축으로 야외시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9개농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금티푸스에 대한 생균백신 1차 야외계군에 대한 접종 결과에서는 57.9%~87.5%의 방어율을 보여주어 환경여건 등 제반 사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당초 10월부터 가을에 입추되는 6주령 전후의 산란계 병아리를 대상으로 총 16주간(2회 접종) 실시할 예정이던 야외 시험은 백신수입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일정에 따라 최종시험이 마무리된 후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대학교 김선중 교수팀에 의해 2차 보완시험(반복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시험이 끝나는 금년말 이후 실용계 농장에 생독백신의 사용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국내 최초 가금콜레라 발생

국내 최초로 제2종 가축전염병인 가금콜레라가 충남 서산 천수만 일대의 간척지 철새류에서 발생된 것으로 밝혀져 양계농가들을 긴장시켰다.

이 질병은 가을에서 겨울철 사이에 닭, 칠면조, 오리(야생조류 및 가금류), 거위류에서 발생되며, 닭의 경우 성계(약 16주)에서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원인균은 파튜렐라(Pasteurella multocida)로 급성 패혈증, 신경증상과 출혈소견을 나타내는데, 급성은 24~48시간 후부터 폐사를 보이는 무

서운 질병으로 새들간의 전파, 오염된 먹이, 물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양계농가에서는 야생조류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양계농장에 출입자 및 차량을 통제하며, 농장 및 습지대, 웅덩이 주변의 소독을 철저히 해야하고,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가축방역기관이나 수의과학검역원에 신속한 신고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란, 닭고기 생산지 실거래 가격 발표

본회는 계란판매 방식이 변화되면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유통의 혼란을 줄이기위해 수차례의 난가정보위원회를 통해 계란가격 발표와 관련하여 개선점을 집중 토의한 결과 실거래 가격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3월 15일부터 난가 실거래 가격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함께 전국 동일시세를 함께 발표하였으며, 농장실거래 가격 발표 이후 도매가격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해 납품시 기준이 없어 거래에 혼선이 야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5월 18일부터는 유통업계에서 실제로 납품한 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평균가격으로 발표하여 실거래 가격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인 바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별 유통시세가 다르게 형성되고 상인과 생산자들의 상호 협조가 부족해 실거래 가격과 유통가격 발표의 한계를 보였다.

한편, 육계의 경우 그 동안 육계가격이 일부 유통업자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유통가격을 조사, 발표시 본회와 계육협회의 발표가격

이 다소 차이를 보여왔으며, 특히 가격 하락시 이중시세가 형성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회, 계육협회,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육계값을 단일시세로 오전에 발표하기로 하면서 지난 8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로써 유통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정확한 시세를 신속히 알 수 있어 생산자들과 유통업자들의 투명한 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닭고기 대일 수출 지원확대 발표

정부는 내년도 수출규격 닭(2.5kg이상) 출하촉진자금 지원을 비롯해 농축산물 판매촉진자금 지원과 내년 3월에 개최되는 일본 동경 푸덱스(FOODEX)박람회에 한국산 냉장 닭고기 전시지원 등 닭고기 대일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계열업체와 일반 닭고기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출하체중 2.5kg이상의 대닭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수당 500원씩 출하촉진자금을 지원하고, 이미 시행중인 가축계열화사업과 연계해 닭고기 수출업체에 계열화자금, 닭고기 가공공장 건축 및 계열화 운영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총 30억원의 예산을 편성, 연리 3%의 낮은 이자에 1년상환을 조건으로 닭고기 수출시 수당 500원씩 총 60만수분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으며,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될 이 자금은 양계관련분야를 총망라한 연합회가 구성되어야 자금운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양계**